

① 제 17대 대통령후보 초청 과학기술정책간담회 -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기초과학 · 원천기술 아낌없는 지원” 약속

글 | 서금영 _ 동아시아언스 기자 symbious@donga.com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는 지난 11월 1일 “대한민국은 ‘기술수입국’에서 ‘기술수출국’으로 가기 위해 국가전략을 획기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공동 주최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존슨 강당에서 열린 대선 후보 초청 과학기술정책 간담회 기조연설에서 “우리 경제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라며 “앞으로는 기초과학과 핵심 원천기술개발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과학자, 비즈니스맨인지 세일즈맨인지?

이 후보는 “누구나 입으로는 ‘과학기술’을 말하지만 어느 누구도 절박한 심정으로 정책을 펴 나가는 건 아닌 것 같다”며 “1970년대 초 KIST가 설립되던 당시의 초심으로 대한민국을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 후보들은 ‘다 해주겠다’ ‘다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만 말한다”며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지도자의 실천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몇 달 전 압둘 칼람 인도대통령을 만나 자신과 공동 위원장이 돼 아시아의 주요 국가 과학자가 참여하는 포럼을 만들자고 합의했다”며 “과학이 과학으로만 가면 안 되고, 비즈니스는 과학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연구개발에 비즈니스가 결합된 R&BD를 강화하겠다는 얘기다.

또 과학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다짐도 있었다. 이 후보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원장들을 만나 ‘과학자가 비즈니스맨인지 세일즈맨인지 모를 정도로 연구과제를 수주하러 정부기관을 다녀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지금과 같이 본연의 업무가 아닌 업무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

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기초과학이나 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의대나 한의대로 빠지는 것도 문제”라며 “과학이야기가 대통령 입에서 나오고 모든 지도층에서 과학자가 우대받는 사회가 되면 초·중·고교 학생들도 과학자가 되려는 사회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패 두려움 없는 창의적 연구 분위기 조성해야

이 같은 과학기술계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후보는 기술수출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5대 실천전략’과 ‘2대 핵심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그는 5대 실천전략으로 ▲과학영재 조기 발굴과 국제과학자 유치 등을 통한 세계적 과학기술 인재 양성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총액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현 3%에서 5%로 확대 ▲미래 성장동력인 '융합 신산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지원 ▲과학분야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과학기술인들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활동 지원 및 간섭 최소화 ▲초·중등 과학교육과정을 개선해 과학기술의 대중화 유도를 공약했다.

이 후보는 “우리 나라에 노벨평화상보다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는 분이 나왔으면 하고 기대를 하고 있다”며 “우수한 인재를 한국에 유치하고 한국에서도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제까지는 많은 과학기술계 인재들이 우리 나라를 떠났지만 오히려 귀국을 자원하고 국적과 관계없이 세계 과학자가 몰려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포부다.

아울러 이 후보는 “정부 조직을 융합시대에 걸맞은 형태로 묶어 쥐야 한다”며 “이제 기술은 단순히 기술과 기술의 융합뿐 아니라 문화와 예술 등이 융합돼 신산업을 창출하고, 기술력 있는 벤처산업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인에 대한 처우와 연구환경에 대해 이 후보는 “과학자에게 애국심에만 호소할 때는 지났다”며 “연구원들이 연구하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의적인 연구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누구나 연구해서 성공만 한다면 저라도 연구자가 됐을 것”이라며 “정부의 지원시스템을 개선해 간섭은 최대한 줄이고 출연연의 자율성은 대폭 확대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 후보는 “과학도 잘 모르고 인사이드도 잦은 공무원들이

연구 성과를 평가하고 연구자에게 계획서를 몇 번씩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과학자들이 연구할 과제를 선정하고 평가해,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선되면 과학자들과 자주 ‘막걸리’ 함께 할 터

이와 함께 2대 대형 핵심 프로젝트로 ▲충청권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대덕연구단지,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오창 과학산업단지 등을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하는 한국판 실리콘밸리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건설 ▲신재생 에너지기술 개발을 통한 에너지 자립국 실현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과학영재 송유근 군이 “국내 광속기를 선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해달라”며 이에 보태 쓰라는 뜻으로 저금통을 건네자 “예산을 제대로 쓰라는 격려이자 압박으로 다가온다”며 큰 웃음으로 화답한 뒤 “포항의 가속기를 고치기 보다는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새로운 설비를 마련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중”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후보는 “과학기술이 제대로 발전하려면 국가 지도자의 비전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1960년대 후반 박정희 대통령이 KIST를 정부출연연구소로 설립하고 수시로 방문해 격려했던 것처럼 대통령에 당선되면 과학기술인들을 자주 만나 ‘막걸리’를 함께 할 생각”이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ST**

이명박 후보 <기조연설>

고맙습니다. 우리 과학기술계의 아주 귀중한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KIST에 1970년대에 자주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KIST가 그때의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필요성은 모두 느끼는데 무언가 집중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과학기술에 대한 근본적 의지가 되어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학기술, 과학기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아닌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선거철이 되었으니깐 “다 해주겠다. 다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많이 들을 겁니다. 사회에서 필요한 것이 실천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CEO 자격으로 싱가포르에 갔을 때입니다. 그 나라의 총리가 어느 날 갑자기 만나자고 연락이 와서 뜻밖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국가 원수를 만난다는 것이 대단한 절차가 필요하고, 굉장히 어려운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꽤 많은 기업가가 싱가포르를 방문했다는 신문 기사를 보고 연락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자주 만나게 되고 지금까지 교류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분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당신들은 비전이 있어야 한다고, 꿈이 있어야 한다고. 그러면서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즘에는 정치를 하다보니까 그때 총리의 그 뜻을 제가 새삼 되돌아 봅니다.

제가 불과 몇 달 전에 압둘 칼람 인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사실은 아무런 직책이 없었습니다. 서울시장 그만두고 아무런 직책이 없이 인도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그분이 아주 쉽게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니까 2시간 정도 만난 것 같아요. 벤치에 앉아 쪽 이야기를 나누며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 포럼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인도의 과학자와 한국 과학자가 참여하는 포럼을 만들고, 그 포럼을 한 1~2년 쯤 하다가 아시아 주요 과학자들이 함께하는 포럼으로 만들어서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인도 대통령은 제가 과학자도 아닌, 철저하게 비즈니스맨 마인드를 가진 저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학은 과학으로 되지 않고 비즈니스는 과학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미래가 없기 때문에 인도 대통령이 저에게 포럼을 제안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과학기술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지금 한국에서는 철저한 의지인 것 같습니다. 대덕연구단지에 가보면 출연연 연구소 소장님들이 “과학자인지, 비즈니스맨인지, 세일즈맨인지 모를 정도로 연구과제를 수주하러 정부기관에 출입해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이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여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지구 인류상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과학자를 이 땅에서 배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자신의 큰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과학자분들이 뜻을 함께 하신다면 이 국토의 작은 나라가 인류를 위해 기여할 날도 멀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과학기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큰 의미가 있는 이곳,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만나게 된 것은 보람 있는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한림원 등의 단체가 함께 초청해주신 것을 더욱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찌하면 이곳에 한국의 미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가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경제발전을 일으킬 수 있었던 배경은 그나마 과학기술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나라 살림은 가난했지만 과학기술이 우선적으로 생각되고, 과학기술인들은 애국심과 자긍심으로 연구에 임했으며, 그 노력의 결과가 어찌하면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학기술인 여러분께 깊은 애정과 존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생을 사업현장에 있던 사람으로서 과학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찌하면 누구보다도 체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과학기술 환경이 썩 기대할 만한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공계 기피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를 단적으로 표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대에 다닌 사람들이 의대에 가고 한의대에 가고, 다른 과목으로 간다며 어느 교수님이 한탄하던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이래서는 정말 한국의 미래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하면 과학기술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부존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은 사람과 과학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그 인재로 첨단 과학기술을 발전시켜나가고, 그 과학기술은 산업현장에서 결실을 얻고,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과학기술을 수입하는 국가에서 언젠가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초과학과 핵심원천기술에 아마도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저희 한나라당이 나름대로의 고도 실천핵심전략과 미래핵심프로젝트를 현재 구상중이고 또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천전략은 무엇보다 먼저 과학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한국 교육제도도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과학자 한 사람이 우리 사회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송유근 군도 앉아 있지만 세계 과학기술인을 만들어내는 것을 아주 과학적인 체제로 만들어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노벨평화상보다도 과학분야에서 노벨상을 받는 분이 나왔으면 하는 기대도 했습니다. 물론 상당부분에서 노벨상 수상에 근접한 한국 과학자들이 있다고도 합니다. 이제 과학이 무시되었다고 많은 인재들이 한국을 떠나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인재들이 과학을 하겠다고 자원을 하고 국적과 상관없이 세계 과학자들이 몰려들 수 있는 연구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 연마에 무엇보다도 획기적인 투자를 해야 합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용기술들은 사실 기업들이 지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초기술연구는 국가가 상당부분 지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투자비용은 25%라고 하지만 앞으로 40%로 키워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또 대한민국의 많은 현실을 생각해보면 지방의 과학투자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방의 과학투자도 우리가 관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미래성장동력인 융합 신산업을 창출하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술은 단순기술의 기술융합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과의 융합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와 기술이 창출되고 융합되어서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융합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좋은 기술력을 갖춘 벤처 산업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과학기술인이 맘껏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겠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현재 시스템을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간섭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정부출연연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PBS시스템에 대해 계속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시장에 들어오게 할 때는 소홀히 하고 돌보지 말아야 할 때는 돌보가지고 과학자들을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기술개발하는 데는 시장기술보다는 적극적, 일방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과학기술 자존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절한 처

우도 개선하겠습니다. 과학자들이 그러한 개선 없이 애국심만으로 연구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실패의 두려움 없이 연구에 종사하고, 그래서 환경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모두에게 과학기술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초, 중, 고 과학교육과정을 개선하고 강화해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타 과학자들도 많이 나오게 해서 우리 사회에 과학친화적인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단위로 과학관, 자연사박물관 등을 지원해서 과학교육과 과학대중화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한나라당에서 추진하는 2대 핵심프로젝트를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국제 과학비즈니스 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기초과학과 핵심원천기술을 교육이나 예술과 결합된 웰빙 도시로 만들어서 여기서 나온 기술이 우리 나라 국민을 먹여 살리는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도시, 대덕연구단지, 오송·오창 산업단지를 하나의 광역경제권단지, 광역 과학특별단지로 묶는 '국제 과학비즈니스 벨트'를 만들어서 기초과학과 원천기술로부터 새롭게 탄생하는 산업화에 이르기까지 미래 생활상을 보여주는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에너지기술개발로 에너지 자립국을 실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 에너지 자급률은 3% 미만에 불과합니다. 에너지 확보는 경제발전은 물론 안보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함께 신에너지개발에 적극적인 투자도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은 우리의 미래라고 합니다. 나라의 운명은 과학기술에 달려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과학기술자의 꿈을 되살려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지도자의 비전과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충분히 이해하고 국가 과학기술에 집중할 수 있는 국가지도자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아니라 실천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가경영을 맡게 된다면 반드시 과학기술인이 우대받는 나라, 과학기술인이 성공하는 나라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그러려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서 연구에 전념하는 과학자들께서도 도와주셔야 하고, 또 그러한 정치를 제가 만들어서 반드시 그 정치를 성심껏 하겠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서 제2의 과학기술 부흥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명박 후보 <질의·응답>

Q 장호완 서울대학교 교수 : 우리 나라는 여러 가지 과학교육의 심각성 문제 때문에 세계를 지향해야할 시대적 배경에 맞지 않는 교육방침으로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후보님께서 교육정책의 평균정책으로 파생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판단한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사고 등 특성화교는 300개이고 설립과 같은 고교유형의 다양화와 입시제도의 자율화 원칙만 언급하셨기에 일면 긍정하면서도 다른 면으로는 공교육의 정상화에 대한 논의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특성화고교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90% 이상 고교의 기초과학을 위한 교육정책 및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국민들의 관심입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답변 듣고 싶습니다.

A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 교육이 바뀌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가 입학 제도에 대한 일정 관리에 손을 조금만 떼면 정상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0년간 교육부가 대학입시제도에 대해 만든 것들이 변한 게 없습니다. 학생들이 혼란만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교육의 자유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교육에도 이제까지는 아이들에게 경쟁력이 있었지만 선생님들은 경쟁력이 없었습니다. 현재 학원과 학교가 똑같습니다. 과목도 가르치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시간에는 자고 있다가 다 학원가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육이 자율성을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교육에도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나라 같은 현실에서는 사교육비가 있어야 좋은 공부할 수 있고 좋은 대학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 중, 고에서부터 우수하고 무엇보다 어려운 사람은 적극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학 입시의 자율화도 5년을 3단계로 나누어서 바꾸려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입시 부담을 줄여 모든 과목을 초, 중, 고등학교에서 배우고, 인성교육도 가르치지만 자기가 재미있는 과목만으로도 수능시험을 볼 수 있도록 과목을 대폭 줄이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음악해서 대학 갈 사람에게는 수능시험에서 수학까지 보는 고통을 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과목만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물리학을 전공하는 학생들 중 제대로 미적분을 풀 수 있

는 아이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데서 인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혹시 대학이 본고사로 가지 않겠느냐고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30년이 지난 이 변화된 시대에 다시 본고사로 돌아갈 대학이 있다면 전 그 대학이 경쟁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대학도 없을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특화됐는지 보고, 그런 입시제도를 쓰면 저는 인재도 양성하고, 학생들의 고통도 줄이고, 또 사교육비도 줄이는 전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안충영 중앙대학교 석좌교수 : 이 후보님께서 현재 경제대통령을 표방하셨는데 정말 적절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 잠재 성장률이 8%를 시행하다가 4% 중반대로 엄청난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되돌리고 복원하는 일은 자본량도 늘리고 투자자도 늘려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총요소 생산성과 관련되는 과학기술력 R&D투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님께서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의 개념을 제시하셨는데, 저는 한걸음 나아가서 미국과 독일, 프랑스와 영국과 같은 기술선진국과 FTA가 타결이 되고 비준된다면 한국의 투자자 보호, 여러 가지 투명성 등이 고양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IT를 바탕으로 선진국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조건에 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 우리 나라에 들어오는 외국 다국적 기업들은 R&D 지향형이 거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으로 싱가포르로 가고 있는 다국적 기업 가운데서 R&D 지향형 기업들을 대거 유치하면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를 위한 명실상부한 '윌스톱 서비스의 기구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후보님께서 인도 대통령과 함께 한국과 인도가 협력해서 아시아판 과학기술지식 플랫폼을 제안·합의를 하셨는데, 그 개념을 더 연장해서 미국과 한국, 미국과 프랑스, 한국과 독일, 한국과 영국과 같이 쌍부적인 차원에서 과학기술동맹이 FTA 이후에 한 템포 더 나아가는 전략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선진국과 전략적인 과학기술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건의드립니다.

A : 말씀하신 두 가지 질문은 답변보다는 좋은 정책을 제안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동감을 하기 때문에 답변보다는 제가 그렇게 하겠고요, '윌스톱 서비스 행정'에 대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정부 조직도 '작은 정부', 뭐 이런 막연한 이야기보다는 시대에 맞는 기능을 부서 간에 조정을 하고 정부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등을 구분하면 자연적으로 필요한 행정이 아주 간소화, 효율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정책으로 받아들여도 좋겠습니다.

Q 성창섭 KAIST 교수 : 정책적인 의지로 제2의 과학기술시대를 열겠다는 표현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인류사회를 되돌아보면 과학기술에 의해 인류역사가 변해되어가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학기술에 의해서 사회가 많은 변혁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최고의결 조직기구에서는 과학자들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조직만 보더라도 공무원들의 통계에 따르면 지금 30% 정도밖에 과학기술인이 참여를 못하고 있고, 그것도 서기관급 이하입니다. 국장급 이상은 거의 없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모든 행정조직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런 것을 보면 정말 과학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과학자들이 배제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느냐는 분명해집니다. 전반적으로 국민 과학화 마인드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핀란드를 보면 거의 70%가 과학기술인이라고 합니다. 일본과 중국도 국가 모든 공무원 계통에서 70% 이상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만 해도 의회나 행정부의 모든 의사결정이 과학기술한림원의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과학기술한림원 석학 중에 석학들이 500명 모여 있다고 하지만 아무도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라고 하면 이 후보님께서 '좀 더 대중화'라는 용어를 빌렸었지만 그 용어 속에 구체적으로 정말 30%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을 70% 정도로 올리실 수 있을 것인지, 또 그 흔한 국회의 비례대표직도 과학자로 다 채우실 수 있을 건지, 아니면 또한 우수과학기술인의 정년을 폐지해서 사명감을 부여하며 인센티브를 주고 이공계 기피현상을 회복시키는 국민의지를 이 후보님의 의지로 실천해보실 수 있으신지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A :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공산권에 가면 지도자에서부터 중요직은 거의 과학기술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70% 통계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전 과학기술자라고 해서 분야에 제한을 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

리 나라도 민간기업의 CEO들은 과학기술인들로 점점 더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도 아주 중요한 현상이구요. 제 생각에는 과학기술의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도 과학기술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다 배제하고 하는 것은 안 되고요. 하부공무원에 과학기술자들이 들어오는 것이 좋은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직업의 선택이 넓어지면 굳이 공무원을 하겠느냐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고 다양한 사회에서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모든 사람이 진출하는데 차별 없이 하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과학기술자들이 참여하는 것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Q 이공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수과학기술 인력에 중점을 두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성들은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에 반해서 사실 여성과학기술인 인력은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공계대학의 경우 여학생 비율이 30% 이상으로 채워져 있고요. 정부에 의해서는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및 육성법에 의해서 국립대학이나 공공기관에서 여성과학기술인들을 채용목표제를 통해 지원하는 방향들이 있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비정규직으로 보면 여성과학기술인이 훨씬 높고 그리고 책임급 이상인 경우에는 거의 20% 이하인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여성과학기술인력이 굉장히 좋은 인력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회에서 크게 지원이 되지 않는데요. 이것에 관한 특별한 대책, 여성에 관한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여성계에 계신 분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해주십니다. 이것은 우리 역사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한 역사는 서양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여성 진출의 속도는 세계에서 제일 빠르다고 그래요. 이제 우리 사회 분위기는 남녀구분이 없습니다. 양성평등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능력위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빠른 속도로 여성이 많아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요즘 우리 학교 교사, 초등학교 교사하고 하급직 공무원들은 양성평등에서 남성에 대한 평등을 오히려 더 해야 된다. 거꾸로 양성평등에서 으레 여성이 보호받듯이 남성을 보호해야 하는 영역도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또 한 단계 뛰어넘어서 능력위주로 남성이 할 수 있는 일

은 여성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분야의 여성진출을 정책적으로 좀 유도를 해야 하고요. 아마 빠른 속도로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이 고급 정책결정분야에서부터 모든 분야로 진출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송유근 인하대학교 학생 : 세종대왕이 집현전을 찾아 연구하던 잠든 학자들에게 당신의 옷을 벗어 덮어주었고, 또 박정희 대통령은 막걸리를 들고 이곳에 찾아와 학자들을 격려했다고 들었는데 대통령이 되시면 세종대왕이나 박정희 대통령처럼 연구소를 찾아 연구원들이나 막걸리를 같이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 유럽 SUN입자가속기를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2년 전에 포항 광가속기센터에 가서 며칠간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현재의 광가속기는 리니어엑셀러레이터, 스토어레이징, 빔라이너로 구성되어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리니어엑셀러레이터 선용 가속부분만 업그레이드가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아진다고 알고 있는데, 대통령이 되시면 그것을 고쳐 줄 수 있으신지요?

A : 송유근 군이 세종대왕이 집현전에 가서 연구자에게 옷을 덮어주었던 관심, 또 박정희 대통령이 이곳에 와서 막걸리 먹었다는 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지도자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으면 연구원들의 사기는 자연스럽게 높아지겠죠. 또 두 번째로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스위스의 SUN입자가속기도 보고 독일의 GSI연구원에도 가보고 또 쓰쿠바도 가봤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 제가 바쁘지 않을 때 여행을 다니고 과학자들하고 만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포스코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큰 예산이 드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제가 또 계산을 다 해봤습니다. 저희는 포스코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것보다는 새로운 설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그 장소를 물색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Q 이종희 모다정보통신 회장 : 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창업환경이 세계 175개국 중에서 하위권에 속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기술창업과 육성을 개선하기 위한 생각이 있으시면 한 두 가지만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IT가 과학기술 산업에 융합을 주도하면서 전통산업과 서비스의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 그 후에는 바이오, 나노기술이 장기 변혁을 이끌 텐데 이들의 발달과 의학기술을 주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학기술의 대응이 굉장히 필요하게 됩니다. 혹시 이러한 융합사업에서의 어떤 트렌드에 대해서나 산업이 잘되기 위해서 평가하는 방법들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A :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릴 때 융합의 세대가 왔다고 했고, 기술이 기술의 융합보다 뛰어넘어서 예술과 문화와 융합하는 시대를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 첨단 기술만 가지고는 대한민국이 사회적인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가 다 본보기라고 하고 있는 핀란드나 덴마크, 아일랜드 이런 나라를 보면 인구가 한 500만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 500만 인구가 되면 모든 것을 고급화시켜서 첨단 지식산업화라 해도 국가가 굉장히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현재 5천만 명의 인구가 통일되었을 때는 7천만 명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물론 첨단과학 분야가 리드해 나가야 하지만 그 전에 제조업이 IT 기술과 융합해서 경쟁력을 만들어 내고, 또 서비스 산업도 IT와 융합하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계천 복원을 하며 단순한 토목 기술뿐만 아니고 IT분야가 없었으면 할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든지 융합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법적 뒷받침도 있어야 하고요. 예를 들면 방송과 통신이 융합한다고 하면 그에 따른 법적 뒷받침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융합시대에 살고 있는데 각 부서의 모든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정부조직도 이런 융합시대에 맞는 기능을 묶어 기본적인 인프라도 만들어 주어야 되고, 이 융합을 통해서 기존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 굉장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 분야에 있어서도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분야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이 깊은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서상기 의원처럼 과학자가 직접 참여해서 법을 만들고 뒷받침하고, 또 거기에 따른 정부조직에 대해서도 좀 어렵겠지만 구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융합시대에 맞는 마인드를 우선 지도자들이 갖는 것들이 좋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되지 않도록, 또 뒤처지지 않도록 그런 인프라를 미리미리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㉔